

보도자료

○주최 및 주관

-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꿈사니즘 위원회
K브랜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장 황교익),
K스토리출판분과 정책간담회

○ K브랜드특별위원회, K-스토리출판분과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K-브랜드특별위원회와 K-스토리출판분과 주최로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 정책 제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K-브랜드특별위원회 황교익 위원장, 김신 수석부위원장(중부대 교수), 박준영 수석부위원장(크로스컬처 대표), 정윤희 K-스토리출판분과 공동위원장(책문화네트워크 대표), K-스토리출판분과 이대건 공동위원장(책마을 해리 촌장), K-스토리출판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앞서 문화콘텐츠 및 문화정책의 기반인 책문화 정책을 실현시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 정책간담회는 K-컬처, K-콘텐츠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강국을 위해 책문화를 중심으로 한 저술 및 창작, 출판, 지역서점, 도서관, 독자 및 독서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포함하여 책문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 책문화생태계 전문가인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이자 K-스토리출판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발제와 지정토론을 통해 책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책문화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장편소설 《마고의 숲》 작가인 장정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K-문학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번역지원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발표했다.

○ 유철상 상상출판 대표이자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은 저술·출판 분야 발제를 통해 K-콘텐츠 전문가 양성,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트렌드 연구, 청년작가 창작지원체계 마련 등 콘텐츠 기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 이건웅 서일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이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은 지역출판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구조 지원,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예비 문학인 육성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문학 플랫폼 구축과 권역별 창작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등 지속 가능한 창작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출판과 동네책방 정책은 이대건 책마을해리 촌장(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이 발표했다. 이대건 촌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담아내는 지역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생산 지원,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지역도서 우선구매 확대, 한국지역도서전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제안했다. 동네책방을 독서문화의 ‘문화 싹틔줄’로 정의한 이대건 촌장은 도서관-지역서점 도서구입 조례 확대와 로컬 북페어, 지역화폐 연계 방안 등을 통해 독서문화생태계를 재건하자고 역설했다.

○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도서관 분야 발제를 통해 현재 사서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13.9%를 지적하며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를 통해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교육 기회 필요, 지역문화 거점인 공공도서관 인력과 예산 확대,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정보복지를 위한 장애인 도서관 이용 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강무홍 어린이책문화연대 대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책문화평등권을 위한 법제 마련과 정책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국민독서진흥 국가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 발제 이후 김림 전 인천작가회의 이사, 주선미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박영주 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 슬슬 대표, 주석희 경기작가회의 사무차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에서는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 정책의 지역격차 해소, 법·제도적 기반 강화, 민간·공공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책문화 정책들은 ▲청년·예비작가 창작 지원, ▲중소출판사와 동네책방 유통생태계 재편, ▲K-BOOK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 확대 및 해외 공판 등 한글책 활용 확산, ▲지역출판과 동네책방의 문화복지 역할 강화,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창작 보상체계 마련, ▲책문화평등권 도입, ▲국민독서진흥기구 ‘국민독서진흥원’ 설립, ▲책문화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한 문체부 내 ‘책문화정책국’ 신설 등 행정체계 개편, ▲문화행정의 혁신 등 책문화 전반에 걸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 정책간담회 좌장을 맡은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는 “책은 K-콘텐츠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와 문화강국의 기반이며, 책문화생태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책문화생태계는 시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공공적 접근과 문화권 보장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에서 저술, 출판, 동네책방, 도서관, 독서 등 책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책문화정책국’ 신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등 문화행정 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K-브랜드특별위원회와 K-스토리출판분과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 문의 : 정윤희(K스토리출판분과 공동위원장), 010-7587-7311